

진다이지(深大寺) 관광 안내

유래:진다이지(深大寺)는 1300여년전 텐표(天平)시대(729-749년)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창건자는 “滿功(만쿠)상인”라 하고, 중국에서 법상종(法相宗:중국 불교 종파중 하나)을 수행한 스님입니다. 창건된지 100여년 후인 9세기, 교토(京都) 북방에 위치하는 히에이잔(比叡山) 엔랴쿠지(延曆寺)라는 절을 총본산으로 하는 천태종(天台宗)에 의해 개종되어, 이래 천태종의 중요한 절중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진다이지(深大寺)라는 절 이름은 수신(물의 신)이며, 중국의 불교 수호신이기도 하는 진자(深沙심사)대왕에게 유래됩니다. 중국에서 저명한 고승인 “삼장법사 현장(602-664)”이 천축(인도)으로 법을 추구하기 위한 순례를 가는 도중, 물이 없는 사막의 강에서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꿈간에 나타나서 현장을 구하으로써 많은 불교경전을 중국에 초래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진자(深沙심사)대왕은 “사랑을 이루어 주는 신”:전설에 의하면 “滿功(만쿠)상인”의 아버지인 후쿠미쓰(福滿)라는 나그네 승이 그 지역 갑부의 아름다운 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부모가 반대하여 그 딸은 호수 가운데 작은섬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러자 후쿠미쓰(福滿)는 삼장법사 현장이 천축에 갔을 때, 사막에서 구제되었다는 고사를 상기하고, “진자(深沙심사)대왕”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큰 영령거북이가 나타나고, 후쿠미쓰(福滿)를 딸이 유폐되는 섬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길조에 부모도 두사람 사이를 허락하고, 그 후 태어난 아이가 “滿功(만쿠)상인”입니다. 상인은 아버지 후쿠미쓰(福滿) 유언대로, 호수 근처에 “진자”대왕을 모셨다고 합니다. 이래, “진자”대왕상은 “사랑을 이루어 주는 신”으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사당에는 12~13세기에 만들어진 불상인 “진자”대왕상이 문외불출 비밀 불상으로서 안치되었습니다. 절의 주지이라도 재임하는 동안 한번만 배례가 허락되는 정도로 엄격합니다.

진다이지(深大寺)는 아사쿠사(淺草)에 있는 센소지(淺草寺)에 이어 도쿄(東京)에서 두번째 오래된 절입니다. 그러나 절의 주요한 건물은 1865년에 난 큰 불에 의해 소실하였고, 그 후 현재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중요하고 오래된 불상등은 무사히 재난을 벗어나서, 현재도 절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절 부지내는 약 2만평 (66, 000 m²) 넓이가 있어, 특산음식인 메밀국수전문점이 경내를 중심으로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불만한 것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1. 산문(山門산문):** “약의문(藥醫門)”라는 형식으로 지어진 이 문은 1695년에 건립된 것입니다. 1865년의 큰 화재를 면한 진다이지 건물중 가장 오래된 건조물입니다. 아름다운 “새지붕”이 풍격과 경취있는 분위기를 풍겨 줍니다.
- 2. 혼도(本堂본당):** 현재 건물은 192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당에는 가마쿠라(鎌倉) 시대(13세기)에 만들어진 “호우칸 아미다 노라이(寶冠 阿彌陀 如來보관 아미다 여래)”라는 앉은 자세 부처님이 본존으로서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당 앞에는 1833년에 세워진 “조코로(常香樓상향루)”라는 향상 향이 끊지 않도록 태우기 위한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그 지붕 밑에 보이는 불에 탄 자국은 1865년 화재 흔적입니다.
- 3. 간잔(元三)다이시도(大師堂):** 진다이지(深大寺)의 신앙 중심을 이루는 이 사당은 천태종의 총본산인 엔랴쿠지(延曆寺) 제18대 주지로 덕이 높은 “元三慈惠(간잔지케이) 大師”를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의 당은 1867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전염병, 액풀이, 악마조복에 대단히 강한 힘을 가진다는 믿음을 받고 있는 이 불상은 높이 2m에 달하는 거대한 좌상이며, 14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비불은 25년에 한번 개장(일반공개) 됩니다. 1025주기의 개장이 2009년에 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주기로서 2034년의 공개가 됩니다. 또 자비로운 그 모습으로써 간잔다이시도(元三大師)는 생전부터 “노이린칸논보사쯔(如意輪觀音菩薩여의륜관음보살)”의 화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나 걱정거리를 작은 호마표에 적어서, 불꽃속에 태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액풀이 신앙으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4. 샤카도(釋迦堂석가당):** 불교미술의 귀중한 문화재 몇 개가 이 사당에 안치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2점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4세기에 주조되었다고 하는, 도쿄(東京)에서 세번째에 오래된 범종입니다. 또 하나는 “샤카노라이키조(釋迦如來像 석가여래기상)이라 불리는 하쿠호(白鳳)시대(645-709년645-709년645-709년645-709년)양식 불상입니다. 이 상냥한 눈을 가진 신은 1909년에 “간잔(元三)다이시도(大師堂)”의 수미단(須彌壇) 아래로부터 발견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불상의 출신경위는 불분명하지만, 불상 소재와 그 특징 있는 표정으로부터 7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경위를 거쳐 진다이지(深大寺)에 오셨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국보로 인정되었는데, 현재는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 4.1.비샤몬텐(毘沙門天비샤문천):**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네 명의 수호신 중 한사람이며, 북쪽의 수비신으로 “다몬텐(多聞天다문천)”이라고도 하는데, 칠복신(7명의 복을 가져다 주는 신들. 일본의 토속신앙) 한명으로서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비샤몬텐”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 이 신은 진자(深沙심사)대왕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오래 세월을 거쳐, 진다이지(深大寺)의 우지가미(氏神:지방의 수호신)라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진다이지(深大寺)의 어원이 되었던 불교의 신입니다. 이 사당에는 10세기경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비샤몬텐(毘沙門天비샤문천)상이 공개되는 중입니다.

추천 산책 코스: “산문”→ “중루”→ “조코로(常香樓상향루)”→ “혼도(本堂)”→ “간잔(元三)다이시도(大師堂)”→ “카이산도(開山堂개산당)”→ “샤카도(釋迦堂석가당)”→ “엔메이(延命연명)관음”→ “진자(深沙심사)대왕당”→ “소바모리칸논”